

LG이노텍, LED 사업 “지지부진”

2/4분기 영업이익 93.2% 감소 … LED·디스플레이 판매단가 하락

대신증권은 7월28일 LG이노텍의 2/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았고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해 6개월 목표주가를 14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내렸다.

LG이노텍은 IFRS 연결 기준 2/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93.2% 줄어든 59억원, 매출은 14% 증가한 1조17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
박강호 애널리스트는 “2/4분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냈다. 하반기에도 LED(Light Emitting Diode) 및 디스플레이(Display) 부품의 출하량 증가가 저조하고 판매단가 하락이 이어져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또한 LG전자 휴대폰 부문이 2011년 4/4분기 흑자 전환할 것이 확실시돼 부품 공급기업인 LG이노텍 역시 2012년 1/4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<매수>로 유지했다. <저작권자(c)연합뉴스 무단 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1/07/28>